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명예교수, 국정교과서 반대한 원로 역사학자

프린트

닫기

2017-06-11 17:22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명예교수, 국정교과서 반대한 원로 역사학자



↑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명예교수 / 사진= 연합뉴스

조광(72)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은 조선시대 후기 한국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원로 역사학자입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5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작업을 주도할 때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온 뒤에도 오류가 많고 수준 미달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 수집·편찬과 한국사 보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조 신임 위원장이 책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와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0년 정년퇴직한 뒤에도 한국고전문학연구원장과 서울시사편찬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주로 조선시대 후기의 천주교 역사에 대해 공부했지만, 근현대사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했습니다.

퇴임 전까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일관계사 재정립에 힘썼고, 안중근 열사의 계몽운동과 독립전쟁에 관한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인문학과 역사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며 "우리 역사를 알아야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세계를 이해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 서울(72) ▲ 가톨릭대 신학과 ▲ 고려대 사학과 ▲ 고려대 한국사 석사·박사 ▲ 동국대 국사교육과 교수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고려대 문과대학장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 한국실학학회 회장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Copyright © 매일방송.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조광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 국사 대표 학자’

서대웅 기자 | 입력 2017.06.11 09:33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72)가 11일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임기만료 1년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단행됐다. 김 전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후 사퇴했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위원장은 가톨릭대 신학부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한국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밟았다.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과 한국사고전문학연구원장을 지냈고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을 지냈다.

조 신임 위원장은 조선후기사와 한국천주교회사 및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청와대는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평가했다.

▲1949년 서울 출생 ▲가톨릭대 신학부 ▲고려대 사학과 및 한국사 석·박사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

[ARS증권정보] OPEN특집, 성장주의 모든비밀 대공개!! 30초 500원 ☎ 060-900-2222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61117248020836>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 국사편찬위원장에 '국정 교과서 반대' 조광 교수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7.06.11 22:33:00 | 수정 : 2017.06.11 23:15:25

- 차관급 4명 인사...국세청장에 관료 출신 '조사통' 한승희
- 노동부 차관에 전공노 설립 반려했던 '퇴직 관료' 이성기

차관급 인사 프로필

	국세청장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사편찬위원장
				
이름	한승희(56·경기 화성)	안병욱(54·전남 순천)	이성기(59·부산)	조광(72·서울)
학력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	순천고, 서울대 해양학	국립철도고, 건국대 행정학	고려대 사학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청와대는 11일 국세청장에 국세청 관료 출신인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56)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 4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59)를, 환경부 차관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인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54)을 임명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72)가 내정됐다.

한승희 국세청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정통 관료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라인의 핵심 요직을 거친 세무 조사 전문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한 내정자를 소개했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함께 차관급이지만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행시 32회로 노동부 국제협력관,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노동부 퇴직 관료다. 국립철도고, 건국대 행정과를 졸업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에 대해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10년 공공노사정책관 시절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려했던 바 있다.

조광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후기 한국 천주교 교회사와 안중근 연구 권위자로 한국사 학계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원로 연구자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강만길(고려대)·이만열(숙명여대)·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사학계 원로들의 반대 성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정배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고려대 사학과 교수 출신이 국편 위원장이 됐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국사편찬위원장, 국정 교과서 강력 비판해 온 조광 명예교수

차관급 인사

입력 2017-06-11 18:15



조광 안병옥 이성기
국사편찬위원장 환경부 차관 고용부 차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72)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판해 온 대표적 원로 학자다. 신임 환경부 차관에는 안병옥(54)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기(59·행시 32회)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조광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은 고려대 문과대학장, 한국고전문학연구원장, 한국사연구회장, 국사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선후기사와 한국천주교회사,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반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는 대표적 원로 학자다.

조 신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비판해 왔다. 지난해에는 원로 교수들과 함께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강연도 했다. 이 강연에서 조 신임 위원장은 "국정 교과서는 특정 역사 해석과 애국심을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파시즘으로 통할 수밖에 없고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안병옥 신임 환경부 차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해양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응용생태학 박사를 취득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생태연구소 연구원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거쳤다. 현재는 시민환경연구소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평가받는다. 안 신임 차관은 지난달 시민환경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지난 10년간의 환경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환경·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새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성기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냈다. 고용과 노동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을 갖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판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2017-06-11 16:10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위원장은 가톨릭대 신학부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에서 한국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밟았다.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과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조선후기사와 한국천주교회사,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라며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797415>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 정치 > 청와대

靑,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임명

(서울=뉴스1) | 입력 2017.06.11 11:00:00 | 수정 2017.06.11 11:00:00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2017.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입력시간 | 2017.06.11 16:09 | 김미경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사학계 원로인 조광(72)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편은 한국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편찬,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이다.

조광 위원장은 조선후기사·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로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 원로학자다. 카톨릭대 신학부와 고려대 사학과, 고려대 한국사 석사·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앞서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취임해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으며 22일 수리됐다.

©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반대론자' 조광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등록 : 2017-06-11 16:55

국사편찬위원회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선후기사 연구 분야의 권위자이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대표적인 원로학자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1945년 서울 출생인 조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사학과와 동 대학교 한국사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고려대에서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문과대학장을 지냈고,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편은 한국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편찬,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조광 지명...국정교과서 비판한 원로 사학자

기사입력 2017. 11. 11. 14:0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72)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조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를 비판해온 대표적 원로 사학자다.

2015년 11월 국정화가 확정 발표될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국정이라는 형식이 역사의 해석을 규제한다”며 “국정화는 유신시대를 정당화하는 국민윤리 교육”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고려대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와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0년 정년퇴직한 뒤에도 한국고전문학연구원장과 서울시사편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역사학계 원로 학자로 조선 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 안중근 연구 등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문과대 학장을 지냈고 한국사연구회장, 한국고전문화학원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 수집·편찬과 한국사 보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조 신임 위원장이 책임자”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필]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입력 : 2017.06.11 16:12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1115450687929&type=1> [복사](#)



조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역사편찬원 원장.

11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72)는 조선후기사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대표적인 원로학자다.

1945년 서울 출생인 조 명예교수는 고려대 사학과와 동 대학교 한국사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임명됐으며 현재는 명예교수, 서울시사편찬위원장을 맡고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조 명예교수를 실력과 평판을 두루 갖춘 원로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조선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반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조 명예교수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로학자로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발행된 지난해 말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역사학계 원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27명

의 원로교수들이 작성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언론 인터뷰, 특강 등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통해 사고를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1945년 서울 △1985년 고려대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 △2005년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 △2014년 서울시사편찬위원장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속보)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입력 : 2017-06-11 16:12:00 | 수정 :

청와대는 “조 위원장은 조선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방
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설명했다.

◆ 조광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 1945년 서울
- 가톨릭대 신학부, 고려대 사학과, 고려대 한국사 석·박사
-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 신아일보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일반] [프로필] 국정교과서 비판했던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기사입력 2018. 11. 14. 14:51 최종수정 2018. 11. 14. 14:51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광(72·사진)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편은 한국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편찬,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이다.

조 위원장은 조선후기사·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로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 원로학자로 손꼽힌다.

1945년 서울출생인 조 위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한국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에서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문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앞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발상", "유신 교과서"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인쇄하기 | 닫기

조광 국사편찬위원장...국정교과서 반대한 원로 사학자

기사입력 2017/06/11 16:55 송고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조광(72)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은 조선시대 후기 한국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원로 역사학자이다.

조 신임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5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작업을 주도할 때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온 뒤에도 오류가 많고 수준 미달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 수집·편찬과 한국사 보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조 신임 위원장이 책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와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0년 정년퇴직한 뒤에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장과 서울시사편찬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주로 조선시대 후기의 천주교 역사에 대해 공부했지만, 근현대사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했다. 퇴임 전까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일관계사 재정립에 힘썼고, 안중근 열사의 계몽운동과 독립전쟁에 관한 논문도 발표했다.

역사학자로서 '인문학과 역사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며 "우리 역사를 알아야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세계를 이해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 서울(72) ▲ 가톨릭대 신학과 ▲ 고려대 사학과 ▲ 고려대 한국사 석사·박사 ▲ 동국대 국사교육과 교수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고려대 문과대학장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 한국실학학회 회장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11 16:5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입력시간 | 2017.06.11 16:09 | 김미경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사학계 원로인 조광(72)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편은 한국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편찬,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이다.

조광 위원장은 조선후기사·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로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 원로학자다. 카톨릭대 신학부와 고려대 사학과, 고려대 한국사 석사·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원장, 고려대 문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앞서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취임해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으며 22일 수리됐다.



조광, 국정교과서 폐지운동 앞장선 한국사학계 원로

[중앙일보] 입력 2017.06.12 02:10 수정 2017.06.12 03:20



이성기

조광

배재정

11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59)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은 조광(72) 고려대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배재정(49)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성기 차관 고용부 업무 두루 거쳐
학계 출신 장관 감안한 보완 인사
배재정, 첫 여성 총리비서실장에**

이성기 차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국제협력관·공공노사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거쳤다.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학으로 석사 학위를, 숭실대에서 IT정책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학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처 관료 출신으로 인선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사학계의 원로

학자다. 지난해 8명의 공동저자와 『거리에서 국정 교과서를 묻다』를 펴냈고, 각종 미디어에 출연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선 후기 한국 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과는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동료 교수로 한술밥을 먹었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에 대해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며 인선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조사통 국세청장 ... 대기업 지능적 탈세 차단 강화할 듯

낙동강 페놀 피해자서 장관으로 ... 김은경, 사드부지 환경평가 맡아

교육부의 전교조 지침 거부한 김상곤, 교육부 수장으로

이날 차관급인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배 비서실장은 부산일보에서 노조 간부를 하며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편집권 침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다 사직을 권고받고 명예퇴직했었다. 배 비서실장은 이날 “다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소통, 그리고 당과 총리실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성기(59)

▶부산 ▶국립철도고-건국대 행정학과-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 ▶노동부 국제협력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조광(72)

▶서울 ▶가톨릭대 신학부-고려대 한국사 박사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 문과대학장,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배재정(49)

▶부산 ▶테레사여고-부산대 영어영문과 ▶부산일보 기자,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